

# 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양계질병 청정화로 가는 길 난계대 질병 예방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 필요

정부에서 전국 종계장을 대상으로 질병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난계대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MG(마이코플라스마 갈리셉티쿰)와 MS(마이코플라스마 시노비에)의 양성율이 농가기준 40%와 77%로, 계사기준 30%와 73%로 각각 판정되면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계대질병 관리강화를 위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고시)' 개정 추진에 따른 종계장 감염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종계장 398호 중 고시개정안에 포함된 16주, 36주, 56주령 근처 계군에 대해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마이코플라스마병(MG·MS)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5월 4일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농장별 계군단위 검사결과 항체양성율 100% 종계장을 대상으로 15%에 해당하는 종계장을 4주동안 이동제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적용대상이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 등을 고려해 조정가능성을 피력했다. 단 이동제한에 따른 비용은 전액 관할 계열화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금티푸스와 추백리의 계사별 항체 양성율은 3~13%, 항원은 전수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MG와 MS 공히 원종계를 제외하고 모든 종계에서 양성계군이 검출되었다. MG의 경우 지역별로 70% 이상의 높은 양성율과 함께 주령이 높아질수록 양성율이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해 생산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농가들은 이 같은 선택적 이동제한조치(항체양성율 100%, 15% 농가)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양성농장의 철저한 세척 및 소독을 통한 관리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유를 보면 정부가 종계장 난계대질병 일체추진 계획을 알리면서 이동제한이 아닌 철저한 세척 및 소독관리를 유도키로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에 대해 지키지 않았으며, 종란과 병아리 납품계약서상 종계에 대한 질병의 책임이 농가에 있는 현 실정에서 계열사에게 이동제한에 따른 전액 부담시킨다 해도 농가에 전이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들의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는 보상방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가들의 현 실정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고시 재검토 기간을 감안하여 3년동안 예방접종을 금지하되 검사유예기간을 둘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현행 가금티푸스와 추백리만 검사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 품목이었으나 닭마이코플라스마병(MG)을 추가하되 이견이 많은 MS는 논의 대상에서 빼고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진과정에서 T/F팀을 구성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궁극적인 목표가 단계대 질병의 근절인 만큼 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업계의 구심점은 어디인가? 본회 조직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최근 본회의 근간을 약화시키려는 현상들이 주변에서 나타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진 단체를 만드는 것은 산업이 분업화, 전문화 되는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편협된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본회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대한양계협회 내에는 산란계, 육계, 종계부화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에 88개의 도지회 지부의 탄탄한 조직을 갖고 2천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50여년의 역사동안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다져오며 양계 생산자들을 대변하는 유일한 '생산자 단체'로 거듭났다.

(사)대한양계협회는 1973년 한국가금협회와 초생추감별협회, 부화협회로 활동하던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면서 탄생한 이후 대한양계협회의 전신인 한국가금협회가 설립된 1962년 이후 54년의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산업의 분업화와 자체적인 이익 대변을 위해 한국육계협회(전 계육협회)와 한국토종닭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가 1990년 이후 진통을 겪으며 발족되었고 각각의 산업을 대변하면서 양계업계의 단체로 활동중에 있다. 일부 학계에서 양계업계 단체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금산업 협의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양계산업 발전과 농가들의 권익 대변을 위한 대 전제하에 이러한 협의체의 필요성은 언제든지 논의 될 수 있지만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산란계, 종계부화, 육계위원회를 통해 농가대변과 권익을 위한 모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육계협회는 가금위생처리협회의 전신으로 도계, 가공을 하는 계열화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생산자단체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변질된 단체들과 맥을 같이 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볼 수 있다. 현재는 우리가 처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계**